

## 2020년 충남 도정에 바란다②: 농업인편

김기홍\*·강마아·이도경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책임연구원·연구위원·연구원  
\*kimkh@cni.re.kr

본 연구는 「2020년 충남도정에 바란다」 기획연재로 충남도정과 관련하여 농업·농촌 관련 정책 방향과 세부 실천에 대해 짚어봄으로써 현장의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충남도의 정책 수립 근거를 제공하고자 함

### CONTENTS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충남 농정리뷰
3. 충남 농업 관련 현황
4. 충남도 농정 설문조사 결과
5. 결론 및 정책제언

### 요약

- 충남의 농정은 3농혁신을 통해 독자적인 완결성 부족이라는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으나 지방농정을 선도하여 농정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는 큰 성과를 보임. 한편 민선 7기 3농정책은 중소농·고령농 대상 소득지원 및 농촌복지 강화의 농정을 지향하고 있으나 행복농정 구현을 위한 보완 노력이 필요함
- 충남도 농가경영체(농업인) 315개소를 대상으로 충남 농정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년 충남 농정 평가 부분에서는 세부사업으로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실현'이 1순위를 나타냈고 부문별로는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안전한 축산물 유통'이 종합 1순위를 차지하는 등 축산 부문이 높은 평가를 받음
- 2020년 충남 농정 전망과 관련한 중요도 결과로는 세부사업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소득안정 장치 강화'가 1순위로 나타나 농어민수당과 공익적 직불제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집약할 수 있으며 부문별로는 '농식품 유통'이 종합 1순위를 차지해 안정적인 판로에 대한 강한 요구로 이해할 수 있음
- 2020 충남 농정과 관련한 정책제언으로는 농정 비전을 담을 수 있는 행복농정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며, 정부 정책과 차별화된 충남의 세부 구상 및 실천 노력이 요구됨. 더불어 코로나 19 이후 먹거리, 농업에 대한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농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임

## 0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연구의 배경

-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은 계속되는 농업인의 고령화 문제와 농촌 과소화 문제 등으로 인해 농업의 생산기반은 물론 농촌의 지역 공동체를 유지시키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임
- 여기에 농업 부분이 직면해 있는 여러 상황들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결정하여 국내 농산물 시장이 미치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도 못한 채 수입 농산물과 경쟁해야 하는 등 외부 여건도 좋지 않음
- 더불어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과 가뭄, 재해 등 기본적으로 자연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농업의 환경적 조건 역시 예측할 수 없이 변화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 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의 발생으로 농업 부문 역시 일시적인 피해대책에 그치지 않고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틀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 연구의 목적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농촌이 처한 여러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2020년 충남의 도정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과 세부 실천에 대해 짚어봄으로써 현장의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충남도의 정책 수립 근거를 제공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우선 충남도의 농업·농촌 정책리뷰를 통해 그간의 농정방향과 틀에 대해 정리하여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충남의 농업이 처한 여건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현황을 정리하고자 함
- 다음으로 충남도 농가경영체(농업인) 31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충남도 농정과 관련하여 2019년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2020년 정책 전망을 살펴보고자 함
-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얻은 시사점을 정리하고 더 나은 충남도 농정을 위해 세부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02 충남 농정리뷰<sup>1)</sup>

### 1. 충남 농정 개요

#### ● 추진 배경

- 민선5기와 민선6기에 시행한 3농혁신은 충남 도정 제1의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한 정책임<sup>2)</sup>
- 당시 3농혁신 정책의 추진배경으로는 협치를 통해서 농정을 농민과 지방중심으로 옮기려는 시도이자 농정에 농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일방적인 중앙정부 하향식 정부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최초 시도로 볼 수 있음
- 이후 민선7기는 3농혁신의 정책적 가치와 기조를 계속 이어받아서 ‘3농정책’이라는 용어로 명칭을 변경, 지속적으로 추진함. 단, 논의기구 구성, 정책 틀 등 형식 측면에서 변화를 시도하였으나 정책과 사업 등 내용 측면에서는 민선5기, 민선6기와 유사한 구조를 보임

#### ● 추진 개요

- 3농혁신 및 3농정책의 주요 내용은 농어업이라는 산업, 농어촌이라는 공간, 농어업인이라는 사람 문제를 하나의 틀로 보고 정책도 이에 맞춰서 가야한다는 취지로 3농으로 통칭함
-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따로 떼어놓고서 근본적이면서 본질적인 농정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전제로 깔려 있음
- 세 가지 요소를 융복합하되 혁신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시기별 비전·목표·추진 전략·추진 분야 등 기본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되 공통 방향 기조는 유지해 옴

1) 주 : 1. 강마야·구자인·정석호(2018)의 “충청남도의 농정추진체계 실태 사례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위탁연구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재구성하여 작성함.

2. “농정”이란, 농업 및 농촌 분야 정책 모두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함. 그리고 민선 5기, 6기 정책인 3농혁신 정책과 민선 7기 정책인 3농정책을 일괄적으로 통칭함.

2) 자료 : 충청남도 3농혁신위원회(2018), 『충남의 3농혁신 이야기』, 도서출판 따비, pp.50~55.

### 2. 충남 농정 주요 내용

#### ● 정책방향 세부 내용

- 3농혁신 1단계, 2단계, 3단계 정책방향은 비전, 목표, 방향 측면에서는 비슷한 기조를 유지한 반면, 추진전략과 추진체계 등에서 차이가 있음(<표 1> 참고)
- 첫째, 1단계(2011~2014)는 5대 전략분야, 30대 중점사업을 추진해 옴. 5대 전략분야는 친환경 경농산물생산, 지역순환식품체계구축, 희망마을만들기, 도농교류, 지역리더 육성 등으로 도출하였고, 추진주체는 3농혁신위원회와 5단 18개 TF팀으로 구성함
- 둘째, 2단계(2015~2018)는 5대 혁신부문, 15대 전략과제, 50대 중점사업을 추진해 옴. 5대 혁신부문은 생산, 유통, 소비, 지역, 역량혁신 체계로 도출하였고, 추진주체는 3농혁신위원회와 9단 20개 TF팀으로 구성함
- 셋째, 3단계(2019~2022)는 기존에 추진해오던 3농혁신 정책의 비전(정신)과 정책방향을 수용함. 단, 대농정책과 소농정책의 구분, 농촌과 도시의 상생, 농업과 환경의 조화, 참여와 투자의 유도, 목표와 전략의 일치, 환류체계 확립 등을 강조함
- 즉, 민선7기 3농정책은 5대 혁신부문, 7대 전략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고 5대 혁신 부문은 제도, 역량, 생산, 유통, 지역혁신 체계로 변경함. 이에 따라 농정제도, 농업인력, 지역먹거리, 연구개발, 시장유통, 농어촌산업, 농어촌마을라는 전략과제를 도출하였고, 3농혁신위원회를 농어업회의소로 기능 전환을 추진함

<표 1> 충남 3농혁신 및 3농정책의 1·2·3단계별 정책방향 세부내용

구 분		1단계(2011~2014)	2단계(2015~2018)	3단계(안)(2019~2022)
목 표	비전	■ 생산자와 소비자,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충남 농어업·농어촌 사회	■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 행복한 농어업인	■ 더 행복한 농어업인,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
	농어업	■ 생산·유통·소비혁신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충남 도민과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	■ 가치증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어업 육성	■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공정한 농축수산물 유통 체계 구축, 농산업기반 구축
	농어촌	■ 고품격 삶의 공간 조성 및 지역공동체 구축 ■ 도시와 순환공생하는 농어촌 공동체 만들기	■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농어촌 만들기	■ 생활-생산-복지의 융·복합으로 행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 농촌산업 고도화 추진

구 분	1단계(2011~2014)	2단계(2015~2018)	3단계(안)(2019~2022)
농어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리더 양성</li> <li>■ 농어업인을 비롯한 농어촌 주민의 소득 및 삶의 질향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업인이 주체가 되는 협치농정의 실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농정체계 확립 및 농어촌 전문 인력 양성, 농어업인이 주체가 되는 협치농정의 실현</li> </ul>
정책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드파워, 행정주도 → 소프트파워, 협치농정</li> <li>■ 행정주도 → 민관 협력 강화</li> <li>■ 대외경쟁력 중심 → 협동과 연대, 지역 네트워크 강화</li> <li>■ 외부 의존형 발전 → 지역 내발적 발전 도모</li> <li>■ 생산기반 위주 → 가공, 유통, 마케팅 강화</li> </ul>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지역순환 식품체계 수립</li> <li>■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내발적 발전</li> <li>■ 농어촌 주민의 역량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지역순환 식품체계 수립</li> <li>■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내발적 발전</li> <li>■ 농어촌 주민의 역량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과 도시의 통합</li> <li>■ 농업과 환경의 조화</li> <li>■ 참여와 투자의 유도</li> </ul>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대 핵심부문, 11개 분야, 30대 중점사업</li> <li>↳ 친환경농산물생산, 지역순환 식품체계구축, 희망마을만들기, 도농교류, 지역리더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대 핵심부문, 15대 전략과제, 50대 중점사업</li> <li>↳ 생산, 유통, 소비, 지역, 역량혁신</li> <li>→ 추진체계상의 변경, 1단계 전략 기조는 지속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대 혁신부문, 17대 전략과제, 100대 중점사업</li> <li>↳ 제도, 역량, 생산, 유통, 지역혁신</li> <li>※ 농정제도, 농업인력, 지역 먹거리, 연구개발, 시장유통, 농어촌산업, 농어촌마을</li> <li>※ 농정, 생산, 유통, 기술, 농촌혁신 : 추진체계 변경</li> </ul>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농혁신위원회/5단 18TF팀</li> <li>※ 중점사업 중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농혁신위원회/9단 20팀</li> <li>※ 전략과제 중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농정책위원회/8개분과위원회, 15개팀</li> <li>※ 전략과제 중심</li> </ul>

자료 : 1. 충청남도(2018), 3농혁신 백서(2011~2018), p.84.

2. 충청남도 3농정책위원회(2019), 민선7기 3농정책 추진계획(2019~2022), p.31.

3. 3농혁신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3nongMain.do>)

4. 충청남도 3농혁신위원회(2018), 『충남의 3농혁신 이야기』, 도서출판 파비, pp.50~55.

#### ● 추진주체와 추진내용

- 농어업인, 전문가, 유관기관, 공무원 등이 모여서 관련 분야에 대해서 토론, 논의, 분석을 실시하고,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시책화함
- 기존 사업을 계승하되 보다 가치있게 혁신을 기반으로 사업의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신규 사업은 새로운 농정패러다임을 적극 수용, 정책에 반영함

- 3농혁신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서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 옴
- 농정 의사결정에 농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농민을 농정의 대상에서 주체로 전환하였고 농민의 자세를 능동적으로 전환하고자 3농혁신위원회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 농업회의소를 설립하였음
- 추진주체는 3농혁신위원회와 단과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3농혁신위원회(현재 3농정책 위원회)는 정책방향 자문 및 실행방안, 대안 제시 역할을 함. 주로 농어업인 대표, 전문가, 유관기관장 등이 참여함
- 나머지 단 및 팀은 시책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추진,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데 도·시군공무원, 유관기관, 농어업인단체 등이 참여함(<표 2> 참고).

<표 2> 충남 3농혁신 및 3농정책의 단계별 추진주체와 추진내용

구분	계획기간	추진주체	추진사업 및 내용
1단계	2011년~2014년	3농혁신위원회 : 26명 단팀 : 5개 사업단, 18개 TF팀 (총 178명)	5대 핵심부문, 11개 분야, 30개 중점사업 - 친환경 농산물생산, 지역순환 식품체계구축, 희망마을 만들기, 도농교류 활성화, 지역리더 육성
2단계	2015년~2018년	3농혁신위원회 : 37명 단팀 : 9개 추진단, 20개 팀 (총 263명)	5대 혁신부문, 15대 전략과제, 50개 중점사업 - 생산혁신, 유통혁신, 소비혁신, 지역혁신, 역량혁신
3단계	2019년~2022년	3농정책위원회 : 43명 8개분과위원회, 15개팀	5대 혁신, 7대 부문, 17대 전략과제, 25대 핵심전략사업, 100개 중점사업 - 농정혁신, 생산혁신, 유통혁신, 기술혁신, 농촌혁신

자료 : 1. 3농혁신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3nongMain.do>)

2. 충청남도(2018), 충청남도 3농혁신 3단계 추진계획(2019~2022)

3. 충청남도(2017), 3농혁신 추진상황보고자료.

### 3. 충남 농정 성과와 한계

#### ● 정책의 성과

- 3농혁신 정책을 통해서 3농 정책의 중요성을 전국적으로 각인시켰다는 점
- 3농혁신 정책으로 지역정책에서 농어업, 농어촌 정책의 가치를 강조하고 재인식 계기를 마련하여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여 새로운 농정 틀 정립에 기여한 점
-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의 틀을 통해 실행에 옮겼다는 점, 3농혁신 정책으로 기존의 농업정책과 농촌정책 간 체계화, 통합화, 연계화 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
- 특히 중요한 성과는 지자체장의 의지, 관심, 열정으로 지방농정을 선도하여 농정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 ● 정책의 한계점

- 중앙정부가 지향하는 목표, 대상,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
-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의 농정 구조 하에서 주도적이면서 자율적인 지방농정을 전개할 수 있는 제도, 재정, 조직 기반 등이 열악했다는 점
- 3농혁신 정책 추진체계 및 농정거버넌스 제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고민이 부족했다는 점

#### ● 향후 계획 : 민선7기 3농정책의 중점 전략사업<sup>3)</sup>

- 민선 7기 3년차 들어서는 지속가능하고 더 행복한 충남농정 구현을 위해 중소고령농 지원을 강화하는 등 충청남도 농정분야 미래전략 추진을 계획함. 핵심기조는 중소농, 고령농을 위한 행복농정 추진을 골자로 함
- 기본방향은 대규모 집단화된 정책대상보다는 소규모 다양화된 정책대상을 위하여 농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 생산·판매·소득 전 단계 지원강화로 농가에 실질 혜택을 확대, 중소농·고령농 소득안정 및 농촌복지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임
- 이를 위해서 중점 추진계획인 사업은 ① 충남형 농어가 기본소득제, ②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 ③ 농업환경실천사업, ④ 소규모 고령농가 농작업지원단 확대 운영, ⑤ 중소고령농 농산물 판매, 유통지원, ⑥ 중소고령농 농촌복지시책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음

3) 자료 : 충청남도 농림축산국(2019), 중소·고령농업인이 행복한 농정추진 전략, 충남 미래전략 수립 토론회 자료집 (2019.08.25).

## 03 충남 농업 관련 현황

### 1. 충남 농업인 현황

#### ● 농가 및 농가인구

- 2018년 현재 충남의 농가는 123,480호로 전국 농가 1,177,318호의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충남의 농업인은 276,426명으로 전국 농업인 1,501,064명의 18.4%를 차지하고 있음
- 충남 농가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0년과 2018년 사이 2.5% 감소하였고, 충남 농가인구도 4.3%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임
-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는 홍성군이 2010년에서 2018년 사이 농가 연평균 증가율이 3.4% 감소하고 있으며 농가인구는 연평균 6.0%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충청남도 시군별 농가 및 농가인구 분포

(단위 : 가구, 명, %)

구분	2010년		2018년		농가 연평균 증가율 (CAGR)	농가인구 연평균 증가율 (CAGR)
	농가(가구)	농가인구(명)	농가(가구)	농가인구(명)		
전국	1,177,318	3,062,956	1,020,838	2,314,982	-1.8%	-3.8%
충청남도	151,424	394,324	123,480	276,426	-2.5%	-4.3%
천안시	12,406	36,774	11,477	27,799	-1.0%	-3.4%
공주시	12,089	31,577	9,554	22,287	-2.9%	-4.3%
보령시	9,006	22,632	8,098	17,542	-1.3%	-3.1%
아산시	10,499	30,019	8,835	20,971	-2.1%	-4.4%
서산시	13,320	33,778	9,833	21,375	-3.7%	-5.6%
논산시	11,925	31,185	10,466	22,903	-1.6%	-3.8%
계룡시	549	1,647	514	1,206	-0.8%	-3.8%

당진시	13,489	35,729	11,702	26,870	-1.8%	-3.5%
금산군	7,638	19,188	6,284	13,795	-2.4%	-4.0%
부여군	10,905	27,798	8,615	19,607	-2.9%	-4.3%
서천군	7,136	17,255	6,641	14,156	-0.9%	-2.4%
청양군	6,427	15,694	5,761	12,264	-1.4%	-3.0%
홍성군	11,082	28,274	8,411	17,289	-3.4%	-6.0%
예산군	11,118	28,280	9,896	22,629	-1.4%	-2.7%
태안군	8,315	19,266	7,393	15,733	-1.5%	-2.5%

자료 : 통계청(2018), 농림어업조사, 행정구역(시군구)별 농가, 농가인구

## ● 연령별 농가 분포

- 2015년 충남의 연령별 농가 비율은 50대 이상이 92.2%를 차지하고 있으며 50대 이하는 전체의 7.8%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충남의 농가 평균 연령은 66.3세로 전국 평균 65.6세보다 0.7세나 높게 나타나 충남의 농업 경영주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표 15] 충청남도 경영주 연령별 농가 분포(2015년)

(단위 : 가구, 세)

구분	20~29	30~39	40~49	50~59	60~64	65~69	70~74	75~79	80세 이상	합계	경영주 평균 연령
전국	792	13,574	84,025	246,824	161,298	170,860	165,210	152,166	93,769	<b>1,088,518</b>	65.6
충청남도	89	1,452	8,813	28,450	19,204	21,158	20,128	19,301	13,413	<b>132,008</b>	66.3
천안시	9	131	1,041	3,239	1,894	1,750	1,468	1,293	826	<b>11,651</b>	63.9
공주시	5	117	720	2,458	1,502	1,545	1,431	1,337	1,036	<b>10,151</b>	65.7
보령시	5	80	520	1,741	1,283	1,439	1,423	1,296	859	<b>8,646</b>	66.7
아산시	8	109	713	2,144	1,410	1,459	1,360	1,395	865	<b>9,463</b>	65.8
서산시	4	130	758	2,469	1,677	1,989	1,981	1,862	1,359	<b>12,229</b>	66.9
논산시	10	150	727	2,457	1,600	1,677	1,576	1,400	975	<b>10,572</b>	65.6
계룡시	1	10	60	152	104	76	77	42	36	<b>558</b>	63.0
당진시	3	100	721	2,286	1,667	1,951	1,780	1,784	1,241	<b>11,533</b>	66.9
금산군	6	67	479	1,454	983	1,044	1,028	1,036	686	<b>6,783</b>	66.3

부여군	13	124	624	2,177	1,472	1,551	1,458	1,317	871	<b>9,607</b>	65.8
서천군	5	71	310	1,138	897	1,156	1,138	1,139	797	<b>6,651</b>	68.0
청양군	2	82	495	1,362	910	1,006	995	1,148	837	<b>6,837</b>	66.9
홍성군	9	122	689	1,908	1,312	1,535	1,472	1,442	1,139	<b>9,628</b>	66.7
예산군	3	101	631	2,169	1,504	1,653	1,527	1,650	1,076	<b>10,314</b>	66.7
태안군	6	58	325	1,296	989	1,327	1,414	1,160	810	<b>7,385</b>	67.9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경영주 연령 및 교육정도별 농가

## ● 경작규모별 농가 분포

- 2015년 충남의 경작규모별 농가 비율은 0.1ha 이상 1.0ha 이하 농가가 전체의 5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0.1ha 미만 비율은 1.8%인 것으로 나타나
- 전국적으로는 1.0ha 이상의 농가 비율은 30.9%인데 반해 충남의 경우는 37.8%로 나타나 충남지역에서 경작규모가 있는 농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임

[표 16] 충청남도 시군별 경작규모별 농가 분포(2015년)

(단위 : ha, 가구)

	전국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경지 없음	10,478	1,183	165	134	54	90	106	31	83	36	35	140	104	10
0.1ha 미만	21,932	2,367	210	217	160	160	165	204	174	106	140	245	183	87
0.1~0.2	164,074	15,025	1,636	1,189	1,217	1,062	975	1,215	814	1,016	907	1,067	861	676
0.2~0.3	105,944	10,427	1,197	933	757	798	683	865	540	521	503	748	670	482
0.3~0.5	194,284	20,674	2,238	1,853	1,429	1,540	1,526	1,488	1,317	1,005	858	1,445	1,431	1,043
0.5~0.7	124,663	15,241	1,516	1,323	1,021	1,118	1,180	909	1,019	647	700	1,157	1,180	814
0.7~1.0	130,702	17,253	1,487	1,407	1,037	1,241	1,492	799	1,270	799	867	1,370	1,421	964
1.0~1.5	113,819	16,690	1,261	1,158	1,018	1,196	1,461	569	1,243	775	902	1,361	1,544	1,063
1.5~2.0	71,292	10,301	741	638	574	754	1,099	280	817	472	575	751	1,028	664
2.0~2.5	36,387	5,469	347	314	310	388	606	135	472	244	332	378	480	390
2.5~3.0	26,248	3,936	224	226	248	283	455	79	399	180	225	249	396	285
3.0~4.0	32,891	4,849	248	270	291	337	595	86	485	239	283	293	470	331

4.0~5.0	16,439	2,495	130	154	149	165	302	40	291	136	185	127	173	179
5.0~6.0	9,788	1,535	54	89	96	85	213	20	192	93	106	88	100	114
6.0~7.0	8,347	1,321	71	66	93	88	192	29	133	86	75	69	87	84
7.0~10.0	10,979	1,626	72	104	91	89	241	11	192	110	86	72	105	102
10.0h a 이상	10,251	1,616	54	76	101	69	242	23	166	186	58	68	81	97
<b>합계</b>	1,088,518	132,008	11,651	10,151	8,646	9,463	11,533	6,783	9,607	6,651	6,837	9,628	10,314	7,385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경영주 연령 및 교육정도별 농가

### ● 충남의 영농형태별 농가분포

- 2018년 충남의 영농형태별로는 논벼 재배 농가가 54.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고, 채소·산나물 21.4%, 식량작물 7.9%, 과수 6.5% 순이었음

[표 2] 충청남도 영농형태별 농가 분포(2018년)

(단위 : 호, %)

행정구역별	계	논벼	식량작물	채소·산나물	과수	기타작물	축산
<b>충청남도</b>	<b>123,480 (100.0)</b>	<b>66,773 (54.1)</b>	<b>9,761 (7.9)</b>	<b>26,374 (21.4)</b>	<b>7,967 (6.5)</b>	<b>6,362 (5.2)</b>	<b>6,243 (5.1)</b>
천안시	11,477	5,598	889	2,072	2,104	541	273
공주시	9,554	4,491	829	1,375	940	584	1,335
보령시	8,098	5,207	293	1,698	390	250	259
아산시	8,835	5,878	523	798	951	380	305
서산시	9,833	5,212	567	3,312	215	216	312
논산시	10,466	5,369	480	2,829	814	585	387
계룡시	514	162	59	189	49	37	19
당진시	11,702	7,846	2,407	637	132	302	378
금산군	6,284	1,660	470	2,301	226	1,534	95
부여군	8,615	5,534	508	1,539	439	266	329
서천군	6,641	3,394	174	2,540	96	143	293
청양군	5,761	3,022	449	1,559	83	312	337
홍성군	8,411	4,929	733	1,120	189	278	1,163
예산군	9,896	5,203	702	1,710	1,212	402	668
태안군	7,393	3,270	677	2,696	129	532	89

자료 : 통계청(2018), 농림어업조사, 영농형태별 농가수(시군구)

### ● 영농형태별 농가분포 추이

- 2018년 영농형태별 농가분포 현황을 전국과 비교해보면, 논벼가 전국 평균 37.9%인 것에 반해 충남은 54.1%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논벼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대신 기타 작물을 제외하고 식량작물과 채소·산나물, 과수 등 전 작목이 전국적인 수준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2010년과 비교하면 2018년 전체 농가수는 전국적으로 1.8% 감소한 것에 반해 충남은 2.5%로 다소 높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특용작물·버섯과 과수는 전국 비율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으며 채소 산나물과 약용작물은 전국 비율에 비해 늘어났음을 알 수 있음. 논벼와 식량작물도 2010년에 비해 줄어들고 있으나 전국 비율과 비교하면 작은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표 7] 충청남도 영농형태별 농가

(단위 : 호, %)

구분	년도	전체농가	논벼	식량작물	채소·산나물	특용작물·버섯	과수	약용작물	화초관상작물	기타작물	축산
전국	2010	1,177,318 (100.0)	523,153 (44.4)	115,978 (9.9)	223,873 (19.0)	28,063 (2.4)	170,237 (14.5)	7,290 (0.6)	18,635 (1.6)	8,934 (0.8)	81,155 (6.9)
	2018	1,020,838 (100.0)	386,739 (37.9)	89,495 (8.8)	254,797 (25.0)	39,892 (3.9)	173,085 (17.0)	7,794 (0.8)	11,323 (1.1)	4,843 (0.5)	52,870 (5.2)
	증감률	△ 1.8	△ 3.7	△ 3.2	1.6	4.5	0.2	0.8	△ 6.0	△ 7.4	△ 5.2
충청남도	2010	151,424 (100.0)	88,424 (58.4)	10,735 (7.1)	22,193 (14.7)	5,740 (3.8)	10,158 (6.7)	550 (0.4)	1,446 (1.0)	1,280 (0.8)	10,898 (7.2)
	2018	123,480 (100.0)	66,773 (54.1)	9,761 (7.9)	26,374 (21.4)	4,335 (3.5)	7,967 (6.5)	613 (0.5)	854 (0.7)	560 (0.5)	6,243 (5.1)
	증감률	△ 2.5	△ 3.4	△ 1.2	2.2	△ 3.4	△ 3.0	1.4	△ 6.4	△ 9.8	△ 6.7

자료 : 통계청(2018), 「농림어업조사」, 영농형태별 농가

### ● 40세 미만 농업종사자

- 2018년 충청남도의 40세 미만 농업종사자(3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는 2010년 15,858명이던 것에서 2018년 4,553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연평균 14.4%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음
- 전국과 비교하면 2018년 전국 평균은 1.77%였으나 충남은 1.72%를 나타냄

[표 4] 충청남도 40세 미만 농업종사자(3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

(단위 : 명, %)

구분	2010년	2012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CAGR
전국	115,583 (5.69)	69,421 (3.57)	68,168 (3.63)	47,783 (2.71)	43,415 (2.50)	39,064 (1.77)	-12.7
충남	15,858 (5.88)	8,858 (3.45)	8,274 (3.59)	6,314 (2.95)	5,149 (2.44)	4,553 (1.72)	-14.4

자료 : 통계청(2019), 농림어업조사, 연령 및 농업종사 기간별 농가인구(15세 이상)

### ● 60세 이상 고령농업인

- 2018년 충청남도의 60세 이상 농업종사자(3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는 2010년 15만 3천 명에서 2018년 15만 7천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0.4%로 증가하고 있음
- 전국과 비교하면 전국 평균 54.76%를 나타냈으나 충남은 전국에 비해 다소 높은 59.50%를 차지하고 있음

[표 23] 충청남도 60세 이상 농업종사자(3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

(단위 : 명, %)

구분	2010년	2012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CAGR)
전국	1,129,748 (55.64)	1,185,682 (61.02)	1,177,979 (62.74)	1,178,272 (66.93)	1,200,224 (69.08)	1,208,167 (54.76)	0.8
충남	152,776 (56.61)	160,618 (62.60)	148,926 (64.57)	148,008 (69.26)	150,254 (71.20)	157,782 (59.50)	0.4

자료 : 통계청(2019), 농림어업조사, 연령 및 농업종사 기간별 농가인구(15세 이상)

### ● 여성농업인

- 2018년 충청남도의 20세 이상 농가인구 가운데 여성농가 인구는 176,591명으로 충청남도 전체 농가인구 대비 51.2% 차지함
- 충남 여성농가인구는 2010년과 2018년 사이에 연평균 3.5% 감소하였는데 반해, 75~79세 여성농가인구는 1.3%, 80세 이상 여성농가인구는 5.3% 증가하여 고령화가 심각함을 알 수 있음

[표 5] 충청남도 여성농가인구 연령별 분포

(단위 : 명, %)

행정 구역별	2010년			2018년			여성농가인구 연평균 증가율 (CAGR)
	농가인구(명)	여성 농가인구(명)	비중 (%)	농가인구(명)	여성 농가인구(명)	비중 (%)	
20~29세	25,286	11,852	46.9	12,029	5,404	44.9	-9.4
30~39세	26,288	11,392	43.3	10,630	4,569	43.0	-10.8
40~49세	44,173	22,055	49.9	17,430	7,919	45.4	-12.0
50~59세	75,459	39,466	52.3	46,145	25,111	54.4	-5.5
60~64세	40,117	20,056	50.0	36,854	19,331	52.5	-0.5
65~69세	40,702	21,444	52.7	35,159	18,074	51.4	-2.1
70~74세	42,838	22,228	51.9	33,259	15,773	47.4	-4.2
75~79세	29,752	15,461	52.0	32,375	17,163	53.0	1.3
80세이상	20,180	12,637	62.6	34,491	19,061	55.3	5.3
합계	344,795	176,591	51.2	258,372	132,405	51.2	-3.5

자료 : 통계청(2018), 농림어업조사, 연령 및 성별 농가인구

## 2. 충남 농업 현황

### ● 농산물 분류별 생산 현황

- 2018년 충남의 농산물 분류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채소류는 47.6%, 식량작물은 46.1%, 과실류가 5.7%, 특용작물이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으로는 식량작물이 전체의 79.6%를, 채소가 12.4%, 특용작물이 4.1%, 과실류가 3.9%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 생산 구조가 채소류와 식량작물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충남의 식량작물 생산면적은 전국의 15.8%를, 생산량은 1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소류는

전국 생산면적의 10.1%를, 생산량은 9%를 나타냄. 과실류의 생산면적은 전국의 4.3%, 생산량은 4.4%였고, 특용작물의 생산면적은 전국의 11.9%, 생산량은 15.9%를 차지함

[표 6] 충청남도 농산물 분류별 생산현황(2018)

(단위 : ha, 톤, %)

구분		전국		충남		구성비	
		면적(ha)	생산량(톤)	면적(ha)	생산량(톤)	면적	생산량
식량작물		924,470 (67.1)	4,397,532 (28.6)	146,300 (79.6)	765,727 (46.1)	15.8	17.4
채소류	과채류	42,078 (3.1)	1,880,890 (12.2)	6,162 (3.4)	299,700 (18.0)	14.6	15.9
	엽채류	47,906 (3.5)	2,930,379 (19.1)	3,366 (1.8)	189,144 (11.4)	7.0	6.5
	근채류	25,559 (1.9)	1,307,704 (8.5)	1,974 (1.1)	93,890 (5.7)	7.7	7.2
	조미채소류	109,304 (7.9)	2,629,133 (71.1)	11,306 (6.2)	207,645 (12.5)	10.3	7.9
	소계	224,847 (16.3)	8,748,106 (56.9)	22,808 (12.4)	790,379 (47.6)	10.1	9.0
과실류		164,718 (12.0)	2,160,457 (14.1)	7,130 (3.9)	94,971 (5.7)	4.3	4.4
특용작물		63,741 (4.6)	64,073 (0.4)	7,596 (4.1)	10,182 (0.6)	11.9	15.9
합계		1,377,776 (100.0)	15,370,168 (100.0)	183,834 (100.0)	1,661,259 (100.0)	13.3	10.8

자료 : 통계청(2018), 「농작물생산조사」

### ● 농가소득 현황

- 2018년 충남 농가소득은 43,510천 원으로 2010년에 비해 3.4% 소폭 상승하였으며, 농가순소득은 30,729천 원으로 2010년에 비해 3.5% 증가하였으며, 농업소득은 16,124천 원으로 2010년에 비해 6.6% 증가하였음
- 전국과 비교하면 농가소득과 농가순소득은 충남의 경우 조금 높은 편이며(각각 3.4%, 2.8%) 농업소득과 농업총수입도 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임(각각 24.8%, 19.4%)을 알 수 있음. 2010년과 비교한 증가율을 살펴보면 충남의 농가소득과 농가순소득은 전국과 비교하여 비슷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농업소득의 증가율은 충남의 경우 전국적인 수준(3.1%)보다 높음
- 농업총수입은 42,680천 원으로 2010년에 비해 4% 증가하였으며, 농업경영비는 26,556천 원으로 2010년에 비해 2.7% 증가하였으며, 농외소득은 14,604천 원으로 2010년에 비해 0.8% 증가하였음

[표 8] 충청남도 농업소득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년도	농가소득	농가순소득	농업소득	농업총수입	농업경영비	농외소득
전국	2010(a)	32,121	23,044	10,098	27,221	17,123	12,946
	2018(b)	42,066	29,873	12,920	35,757	22,837	16,952
	증감률(c=b-a)	9,945 (3.4)	6,829 (3.3)	2,822 (3.1)	8,536 (3.5)	5,714 (3.7)	4,006 (3.4)
충청남도	2010(a)	33,220	23,320	9,672	31,165	21,493	13,648
	2018(b)	43,510	30,729	16,124	42,680	26,556	14,604
	증감률(c=b-a)	10,290 (3.4)	7,409 (3.5)	6,452 (6.6)	11,515 (4.0)	5,063 (2.7)	956 (0.8)

자료 : 통계청(2018), 「농가경제조사」, 농가소득

### ● 농축산물 판매금액별 가구 현황

- 2018년 충남 농축산물 판매금액별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120만 원~1천만 원이 41.8%로 가장 많았으며, 1천~3천만 원이 20.6%, 판매없음이 13.4% 순이었음

[표 9] 충청남도 농축산물 판매금액별 가구

(단위 : 호, %)

구분	년도	계	판매 없음	120만 원 미만	120만 원~1천만 원	1천~3천만 원	3천~5천만 원	5천~1억 원	1억~2억 원	2억 원 이상
전국	2010	1,177,318 (100.0)	125,089 (10.6)	148,287 (12.6)	525,408 (44.6)	226,454 (19.2)	72,623 (6.2)	53,401 (4.5)	17,396 (1.5)	8,660 (0.7)
	2018	1,020,838 (100.0)	125,190 (12.3)	115,366 (11.3)	421,855 (41.3)	195,301 (19.1)	70,524 (6.9)	56,189 (5.5)	25,511 (2.5)	10,903 (1.1)
	증감률	△ 1.8	0.0	△ 3.1	△ 2.7	△ 1.8	△ 0.4	0.6	4.9	2.9
충청남도	2010	151,424 (100.0)	13,921 (9.2)	16,249 (10.7)	72,637 (48.0)	30,742 (20.3)	8,638 (5.7)	6,091 (4.0)	2,050 (1.4)	1,096 (0.7)
	2018	123,480 (100.0)	16,571 (13.4)	11,670 (9.5)	51,592 (41.8)	25,469 (20.6)	8,502 (6.9)	5,742 (4.7)	2,382 (1.9)	1,552 (1.3)
	증감률	△ 2.5	2.2	△ 4.1	△ 4.2	△ 2.3	△ 0.2	△ 0.7	1.9	4.4

자료 : 통계청(2018), 「농림어업조사」, 농축산물 판매규모별 농가

### ● 경지규모별 농가

- 2018년 충남 경지규모별 농가는 1ha 미만이 62%(76,607호)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1~2ha 농가가 19%(23,469호), 2~3ha 농가가 6.9%(8,579호) 순인 것으로 나타남
- 경지가 없거나 2ha 미만의 소농이 전체 83.6%를 차지하고 있으며, 5ha 이상의 대농은 4.7%에 불과함



[표 10] 충청남도 경지규모별 농가

(단위 : 호, %)

구분	년도	계	경지없음	0.1ha 미만	1ha 미만	1~2ha	2~3ha	3~5ha	5ha 이상
전국	2010	1,177,318 (100.0)	13,556 (1.2)	22,657 (1.9)	737,695 (62.7)	228,540 (19.4)	78,240 (6.6)	57,039 (4.8)	39,591 (3.4)
	2018	1,020,838 (100.0)	9,174 (0.9)	23,352 (2.3)	691,091 (67.7)	163,191 (16.0)	55,690 (5.5)	42,047 (4.1)	36,294 (3.6)
	증감률	△ 1.8	△ 4.8	0.4%	△ 0.8	△ 4.1	△ 4.2	△ 3.7	△ 1.1
충청 남도	2010	151,424 (100.0)	1,495 (1.0)	2,240 (1.5)	86,078 (56.8)	34,696 (22.9)	12,143 (8.0)	8,583 (5.7)	6,189 (4.1)
	2018	123,480 (100.0)	700 (0.6)	2,440 (2.0)	76,607 (62.0)	23,469 (19.0)	8,579 (6.9)	5,909 (4.8)	5,776 (4.7)
	증감률	△ 2.5	△ 9.0	1.1%	△ 1.4	△ 4.8	△ 4.2	△ 4.6	△ 0.9

자료 : 통계청(2018), 「농림어업조사」, 경지규모별 농가

### ●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

- 2018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은 쌀이 61kg, 보리쌀 1.3kg, 밀가루 1.1kg 순이었음
- 2018년 현재 소비자들의 1인당 쌀 소비량은 2010년에 비해 17.5%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음

[표 11] 전국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

(단위 : kg)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양곡	쌀	72.8	71.2	69.8	67.2	65.1	62.9	61.9	61.0
	보리쌀	1.3	1.3	1.3	1.3	1.3	1.3	1.3	1.3
	밀가루	1.5	1.4	1.3	1.3	1.2	1.2	1.2	1.1

자료 : 통계청(2018), 「양곡소비량조사」,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

## 04 충청남도 농정 설문조사 결과

### 1. 설문조사 개요

#### 1) 조사목적

- 본 설문조사는 충남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남 농정에 대한 정책만족도 및 정책희망도 등 도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음
- 세부적으로는 2019년까지의 정책만족도를 파악하고 2020년도 정책희망도와 정책희망방향에 대해 들어봄으로써 2020년도의 도정운영에 대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이를 위해 충청남도 농업·농촌 지원정책 도출과 관련한 농업인 현황파악, 경영애로사항, 희망 정책 등에 대해 살펴보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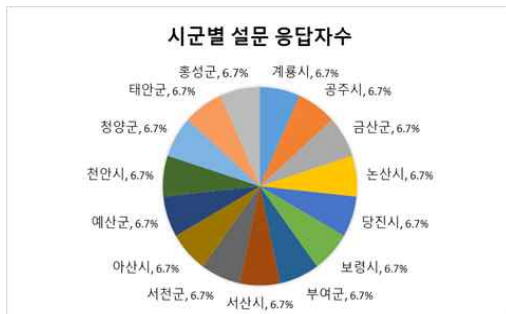
#### 2) 조사개요

- 충남도내 농가 경영체 315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개요 및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음
-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를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고 응답한 설문지 가운데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315개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빈도분석(analysis of frequency)을 진행하였음
- 조사 지역은 충청남도 15개 시군 전체로 하였고, 조사 기간은 2019년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이루어졌음

[표 12] 설문조사 개요

조사목적	충남 도정 정책과 관련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상황 파악 및 농업·농촌 정책 수립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충남 농가 경영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지역	충청남도 전체 15개 시/군
표본크기	315개
자료수집방법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
조사대상자	조사지역 내 농업인(농가경영체)
조사기간	2020. 02. 17. ~ 2020. 02. 28.

- 각 시군별로는 21개의 응답지를 동일하게 회수하였고 전체 315개의 유효 설문지를 확보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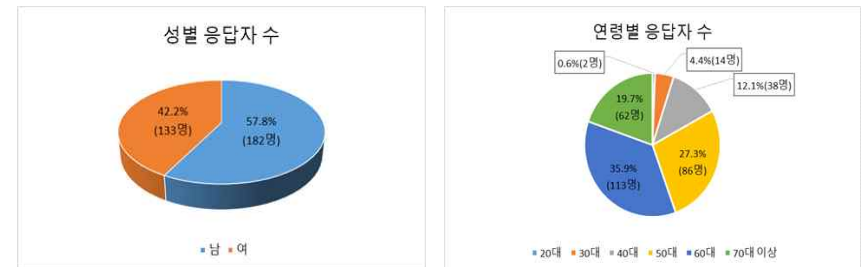
[그림 1] 충남 시군별 응답자 수

## 2. 설문조사 결과

### 1) 충남 농업인 설문대상자 일반 현황

####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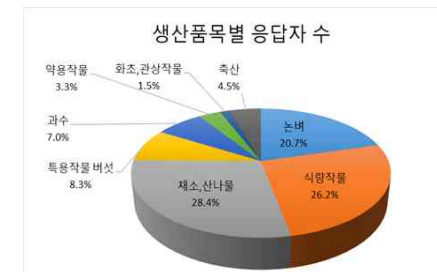
- 성별로는 남자인 응답자가 182명으로 57.8%, 여자가 133명으로 42.2%를 차지하였고, 연령별로는 60대가 35.9%(113명)로 가장 많았고, 50대 27.3%(86명), 70대 이상 19.7%(62명) 순이었음



[그림 2] 성별·연령별 응답자 수

#### ● 생산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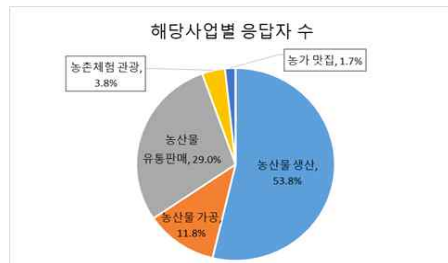
- 응답자의 생산품목으로는 채소, 산나물이 28.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식량작물이 26.2%로 2위를 나타냈고, 논벼가 20.7%로 3위를 나타내었으며 특용작물, 버섯(8.3%), 과수(7.0%), 축산(4.5%)의 순이었음



[그림 3] 농업형태별·생산품목별 응답자 수

### ● 농업생산 및 경영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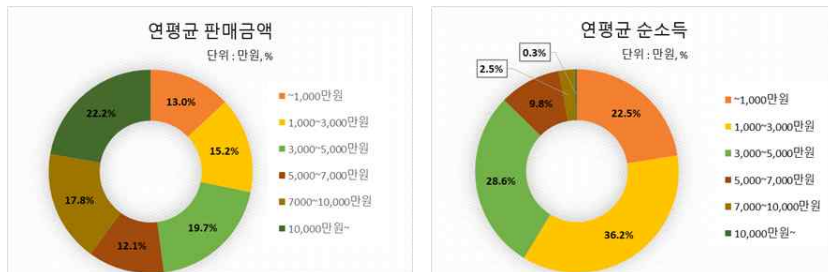
- 해당 사업별로는 농산물 생산이 53.8%로 가장 많았고, 농산물 유통·판매가 29%를 차지하였으며, 농산물 가공이 11.8% 순이었음. 농촌체험 관광(3.8%)과 농가 맛집(1.7%)을 경영하는 농가도 일부 있었음



[그림 4] 해당 사업별 응답자 수

### ● 농산물 판매금액 및 순소득

- 응답자의 연평균 판매 금액은 10,000만원 초과가 22.2%로 가장 많았고, 3,000만원~5,000만원이 19.7%, 7,000만원~10,000만원 17.8% 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수준의 판매금액을 보이고 있었음
- 이에 비해 응답자의 연평균 순소득은 1,000만원~3,000만원이 36.2%로 가장 많았고, 3,000만원~5,000만원 28.6%, 1,000만원 미만 22.5% 순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농업 경영과 관련한 판매금액 대비 순소득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 농업 경영과 관련한 비용 즉 투자비, 경영비, 인건비 등이 판매금액의 50% 이상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예측됨



[그림 5] 응답자의 연평균 판매금액 및 순소득

### ● 영농종사기간 및 농업 참여 조직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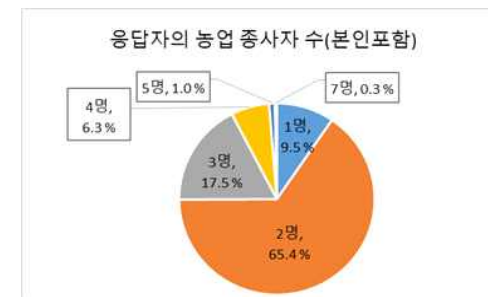
- 응답자의 영농종사기간은 30년~40년이 21.9%로 가장 많았고, 10년~20년 21%, 20년~30년 20.3% 순이었음
- 응답자의 농업 참여 조직형태로는 개인농가가 60.1%로 가장 많았고, 협동조합 22.7%, 영농조합법인 15.1%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6] 응답자의 영농종사기간 및 농업 참여 조직형태

### ● 농업 종사자 수

- 응답자의 농가 경영체에 종사하는 농업 종사자 수는 본인 포함하여 2명이 65.4%로 나타나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명(17.5%), 4명(6.3%)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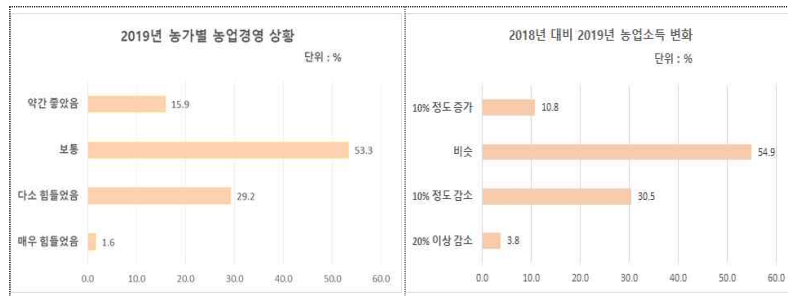


[그림 7] 응답자의 농업 종사자 수(본인 포함)

## 2) 충남 농업인 2019년 농업경영 상황 및 2020년 농업경영 전망

### ● 2019년 농업경영 상황

- 2019년 농업경영상황에 대해서는 약간 좋았다는 응답은 불과 15.9%로 부정적인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농업경영상황이 힘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8%였고, 이 가운데 다소 힘들었다는 대답이 29.2%, 매우 힘들었다는 대답이 1.6%로 나타남
- 2018년 대비 2019년도의 농업소득 변화는 비슷하다는 응답이 54.9%로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었음. 전년 대비 농업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34.3%를 차지했는데 이 가운데 10% 정도 감소 수준이 30.5%, 20% 이상 감소한 경영체도 3.8% 가량 있었음. 전년 대비 농업소득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10.8%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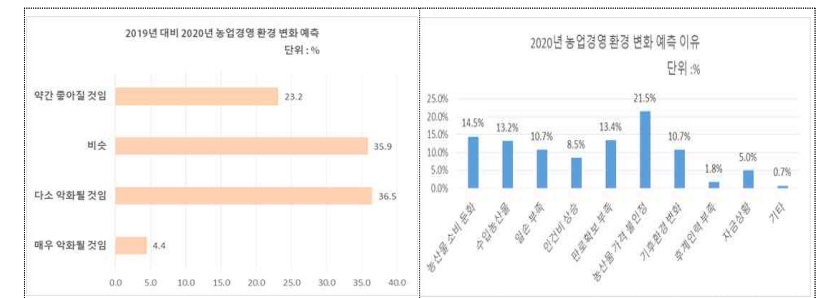
[그림 8] 농업인 체감 경영상태

### ● 2020년의 농업경영 전망

- 2020년의 농업경영 상태에 대한 예상 응답도 마찬가지로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3.2%에 그쳐 부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남
- 2020년 농업경영환경 변화 예측으로는 35.9% 전체 약 1/3 가량이 전년도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을 보임. 악화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은 40.9%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다소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36.5%를 차지하고 있었고, 매우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4.4% 정도 차지하였음
- 2020년의 농업경영환경은 전체적으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이에 대한 이유로는

농산물가격 불안정이 21.5%로 가장 높았고, 농산물소비 둔화가 14.5%, 판로확보부족 13.4%, 수입농산물 13.2%로 나타남. 기후환경 변화와 일손부족이라는 응답이 각각 10.7%를 차지하였고, 인건비 상승(8.5%), 자금상황(5.0%), 후계인력부족(1.8%) 순으로 나타났음

-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농산물 소비가 둔화됨과 동시에 수입농산물과 경쟁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판매가 가능한 판로확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그림 9] 2020년 농업경영환경 예상

### ● 2020년 농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전략 방안

- 2020년 농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전략 방안으로는 판로확대(온라인판매 등)가 19.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생산규모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을 통해 경영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응답이 18.6%로 나타났으며, 생산품목 다각화가 15.6%를 차지하였음
- 이외에 친환경·유기농업 전환이 11.1%, 브랜드·마케팅 개발이 11%를 나타냈으며, 인력을 증원하거나 감축하겠다는 응답이 6.2%, 신재배기술 도입(5.6%), 6차산업화(가공, 체험 도입)(5.2%), 생산자 조직화·협업(3.5%), 스마트팜·드론 등 활용(2.1%), 농업 업종전환(농업->축산)(1.9%) 순으로 응답하였음



[그림 10] 2020년 농업경영전략(대처방안)

### 3) 2019년 충남 농업·농촌 정책 평가

#### ● 정책 평가 방법

- 정책 평가 측정 방법으로는 충남도가 '2019년 주요업무추진계획(충청남도, 2019)'에서 제시한 2019년 충남도 농업·농촌 주요 사업 25개 세부 사업 전 항목을 두고, 각 세부 사업별로 1년간의 정책 효과에 대해 '1. 약', '5. 강'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도록 함. 이를 평균하여 부문별 순위를 매김

#### ● 정책효과 1순위 사업은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실현'

- 충남도의 2019년 농업·농촌 정책 중 농업인에게 가장 정책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평가된 사업은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실현'인 것으로 나타남
- 2순위는 '「충남농산물=국민먹거리」 우수 농산물 이미지 정착', 3순위는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선제적 대응', 4순위는 'AI·구제역 없는 청정 충남', 5순위 '우수한 경제형질의 고품질 가축생산기반 구축', 6순위 '축산행정력 총동원, 축산악취 저감목표 70% 달성', 7순위 '차별화된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으로 농촌관광 활성화', 8순위 '여성농업인 육성 및 권익 증진 강화', 9순위 '균형있는 식량산업 육성 및 충남쌀 유통 역량 강화', 10순위는 '소비 트렌드에 맞는 안전 축산물 생산 기반 마련'으로 나타남
- 축산 부문은 모든 사업이 10순위 안에 드는 결과를 보여 사업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 받았음. 이는 작년 한 해 AI나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정책효과가 큰 것으로 농업인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 부문별 1순위는 '촉촉한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안전한 축산물 유통'

- 부문별로는 '촉촉한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안전한 축산물 유통'이 1순위였고, '가축환경사랑이 공존하는 자연친화형 축산업 육성'이 2순위로 나타나 축산·방역 부문이 가장 높았음
- 3순위는 '미래형 생명농산업 육성 및 안전한 영농 지원', 4순위는 '농식품 유통 혁신 연매출 8,000억원 달성', 5순위는 '숲으로 그리는 행복한 충남 실현', 6순위는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지원정책 강화', 7순위는 '활력이 넘치고 사람이 돌아오는 행복한 농촌 환경 조성'인 것으로 나타남

● 농업업 육성 및 안전한 영농 부문 3순위, 농산물 유통 부문 4순위

- ‘미래형 생명농산업 육성 및 안전한 영농 지원’ 부문은 종합 3순위였는데, ‘식량산업 육성 및 충남쌀 유통 역량 강화’(9위), ‘재해보부터 안전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13위), ‘스마트팜 확산 등 미래 농업업 육성’(14위), ‘안전안심 농산물 생산 공급체계 구축’(15위)은 중위권 순위를 기록함
- ‘농식품 유통 혁신, 연매출 8,000억원 달성’이라는 농산물 유통 부문은 4순위로 세부사업으로는 25개 항목 가운데 ‘먹거리종합전략을 선도하는 지역순환경제 창출’(17위), ‘권역별 시장 개척을 통한 매출 확대’(21위), ‘수출시장 다변화’(24위)는 낮은 순위를 기록함

● 산림 부문 5순위, 농업인 부문 6순위, 농촌 부문 7순위

- 산림 부문인 ‘숲으로 그리는 행복한 충남 실현’은 ‘재해예방 등 산림보호대책 추진’이 11위로 평가된 것 이외에는 ‘녹지공간 확충 및 산림복지서비스 확대’(16위), ‘임산업 발전기반 구축’(19위), ‘밀원수 장단기 확보대책’(20위) 등 중하위로 평가됨
- 농업인 부문인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지원정책 강화’는 6순위로 ‘여성농업인 육성’ 사업이 8순위로 높이 평가된 것에 반해, ‘민선 7기 3농정책 성과 과시화’는 12위로 중간 순위를 차지했고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은 최하위인 25순위로 평가됨
- 농촌 부문인 ‘활력이 넘치고 사람이 돌아오는 행복한 농촌 환경 조성’은 부문에서는 최하위 순위를 나타냈는데, ‘농촌관광’(7위) 이외에는 ‘6차산업 활성화’(18위), ‘농촌 전문지원조직 육성을 통한 행복한 마을만들기 확대’(22위), ‘다원적 기능 구축을 통한 더 행복한 농촌공간 조성’(23위)은 평가가 낮았음

[표 13] 2019년 충남도 농업·농촌 주요 정책효과 결과

2019년 충남도 농업·농촌 주요 정책	순위	평균값	표준편차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지원정책 강화	6	3.21	
① 민선7기 「더 행복한 3농정책」 성과 과시화	12	3.26	0.624
② 여성농업인 육성 및 권익 증진 강화	8	3.29	0.692
③ 청년농업인 육성 및 소득안정 정책 확대	25	3.08	0.753
농식품 유통 혁신, 연매출 8,000억원 달성	4	3.24	
① 「충남농산물=국민먹거리」 우수 농산물 이미지 정착	2	3.46	0.593

② 충청권 권역별 농산물 시장개척을 통한 매출 확대	21	3.18	0.615
③ 정부정책 「먹거리종합전략」을 선도, 지역순환경제 창출	17	3.22	0.694
④ 해외국가별 맞춤형 농산품 중점개발 및 수출시장 다변화	24	3.09	0.690
미래형 생명농산업 육성 및 안전한 영농 지원	3	3.25	
① 스마트팜 농업 확산 등 미래 농업업 육성	14	3.24	0.687
② 환경과 조화되는 안전·안심농산물 생산 공급체계 구축	15	3.24	0.612
③ 균형있는 식량산업 육성 및 충남쌀 유통 역량 강화	9	3.27	0.632
④ 재해보부터 안전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13	3.25	0.631
활력이 넘치고 사람이 돌아오는 행복한 농촌 환경 조성	7	3.20	
① 차별화된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으로 농촌관광 활성화	7	3.29	0.666
② 농촌 전문지원조직 육성을 통한 행복한 마을만들기 확대	22	3.16	0.611
③ 다원적 기능 구축을 통한 「더 행복한 농촌공간」 조성	23	3.13	0.722
④ 신부가가지 창출을 통한 농촌융복합(6차)산업 활성화	18	3.22	0.721
숲으로 그리는 행복한 충남 실현	5	3.23	
① 경제 환경을 고려한 임산업 발전기반 구축	19	3.21	0.650
② 「밀원수 으뜸 충남」 장 단기 확보대책 추진	20	3.19	0.700
③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공간 확충 및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16	3.24	0.656
④ 3대 재해 사전예방 등 전략적 산림보호대책 추진	11	3.26	0.636
가축환경사람이 공존하는 자연친화형 축산업 육성	2	3.28	
① 축산행정력 총동원, 축산악취 저감목표 70% 달성	6	3.29	0.656
② 소비 트렌드에 맞는 안전 축산물 생산 기반 마련	10	3.27	0.662
③ 우수한 경제형질의 고품질 가축생산기반 구축	5	3.30	0.652
축축한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안전한 축산물 유통	1	3.45	
① AI·구제역 없는 「청정 충남」 실현	4	3.43	0.685
②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선제적 대응	3	3.45	0.673
③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실현	1	3.47	0.645

## 2) 2020년 충남 농업·농촌 정책 전망

### ● 정책 평가 방법

- 정책 평가 측정 방법으로는 충남도가 '2020년 주요업무계획(충청남도, 2020)'에서 제시한 2020년 충남도 농업·농촌 주요 사업 20개 세부 사업 항목을 두고, 각 세부 사업별로 정책 중요도에 대해 '1. 약', '5. 강'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도록 함. 이를 평균하여 부문별 순위를 매김

### ● 정책 중요도 1순위 사업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소득안정 장치 강화'

- 충남도의 2020년 농업·농촌 정책 중 농업인들에게 정책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 사업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소득안정 장치 강화'인 것으로 나타남
- 2순위는 '농·특산물 국내 소비시장 창출 및 유통체계 혁신', 3순위는 '먹거리 공급기반 확대를 통한 차별없는 먹거리 복지 향상', 4순위는 'ASF·구제역·AI' 차단 특별방역 및 위험요인 최소화', 5순위 '산림재해 예방체계 구축으로 도민 생명·재산 보호', 6순위 '가뭄 극복 및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7순위 '축산물 위생·안전 강화를 통한 안전 먹거리 유통', 8순위 '농촌형 복지체계 강화 및 사회적농업 가치 확산', 9순위 '여성·청년농업인 육성 및 농촌 일자리 창출', 10순위는 '과학 축산을 활용한 고품질 우수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나타남

### ● 부문별 1순위는 '농식품 유통 혁신으로 충남 농촌경제 활성화'

- 부문별로는 유통 부문인 '농식품 유통 혁신으로 충남 농촌경제 활성화'가 종합 1순위를 기록했고 '걱정 없이 농사짓는 농업안전망 확충'이 2순위로 나타남
- 3순위는 '숲으로 그린 행복 충남 실현', '가축, 환경,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친화형 축산업 육성', 4순위는 '사람이 돌아오는,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인 것으로 나타남
- 1순위 유통 부문에는 '소비시장 창출 및 유통체계 혁신'(2순위), '먹거리 복지'(3순위)는 높은 반면,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16순위), '수출'(18순위)은 낮은 순위를 보임

### ● 부문별 2순위는 '걱정 없이 농사짓는 농업안전망 확충'

- '농업안전망' 부문은 종합 2순위였는데, '공익적 가치 고려한 소득안정'(1순위)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업기반 확충'(6순위)가 높은 기대를 모았고 '원예산업'(13순위)이 중하위였고, '친환경농업과 인삼산업' 부분은 가장 낮은 점수(20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 산림 부문과 축산업 공동 부문별 3순위

- 산림 부문인 '숲으로 그리는 행복한 충남 실현'에서는 세부사업 가운데 '산림재해 예방'이 5순위로 평가된 것 이외에는 '임산업 발전기반 구축'(11순위), '녹지공간 및 휴양공간 확충'(12순위)은 중간 정도로 평가됨
- 축산업 부문인 '가축, 환경,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친화형 축산업 육성'에서는 '특별방역 및 위험요인 최소화'(4순위), '축산물 안전 먹거리 유통'(7순위) 이외에, '인수공통전염병 근절'(14순위), '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대책'(17순위)이 낮은 순위를 보임

### ● 농촌 정책 부문별 5순위

- 농촌 부문인 '사람이 돌아오는,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은 최하위 순위를 나타냈는데, '농촌 복지 및 사회적농업 확산'(8순위), '여성·청년농업인 육성 및 일자리 창출'(9순위)이 중간 정도 평가를,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활성화'(15순위)와 '농촌 희망마을 조성'(19순위)은 낮은 순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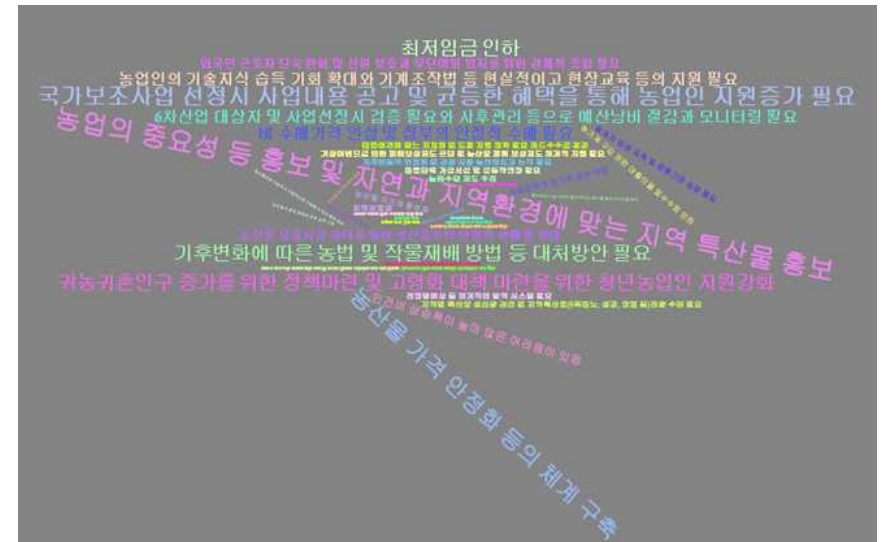
[표 14] 2020년 충남도 농업·농촌 주요 정책 중요도 전망

2020년 충남도 농업·농촌 주요 정책	순위	평균값	표준편차
걱정 없이 농사짓는 농업안전망 확충	2	4.48	
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소득안정 장치 강화	1	4.68	0.467
② 균형있는 식량산업 육성 및 스마트 원예산업 선도	13	4.41	0.613
③ 친환경농업 확산 및 충남 인삼산업 전략산업화	20	4.29	0.600
④ 가뭄 극복 및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6	4.52	0.500
농식품 유통 혁신으로 충남 농촌경제 활성화	1	4.50	
① 먹거리 공급기반 확대를 통한 차별없는 먹거리 복지 향상	3	4.60	0.503
② 농·특산물 국내 소비시장 창출 및 유통체계 혁신	2	4.63	0.485
③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로 先순환 농촌경제 구축	16	4.38	0.530
④ 농업 통상환경 변화 대응, 해외 마케팅 및 수출지원 확대	18	4.38	0.623

사람이 돌아오는,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	4	4.40	
① 농촌형 복지체계 강화 및 사회적농업 가치 확산	8	4.45	0.564
② 여성·청년농업인 육성 및 농촌 일자리 창출	9	4.44	0.596
③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통한 농촌 희망마을 조성	19	4.32	0.645
④ 지속가능한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활성화	15	4.40	0.596
숲으로 그린 행복 충남 실현	3	4.46	
① 경제·환경을 고려한 임산업 발전기반 구축	11	4.43	0.606
② 기후 및 환경변화 대응, 생활밀착형 녹지공간 및 휴양공간 확충	12	4.42	0.578
③ 산림재해 예방체계 구축으로 도민 생명·재산 보호	5	4.54	0.499
기후, 환경,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친화형 축산업 육성	3	4.46	
① 「ASF·구제역·AI」 차단 특별방역 및 위협요인 최소화	4	4.57	0.557
② 인수공통전염병 근절	14	4.40	0.647
③ 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 실효성 확보	17	4.38	0.593
④ 과학 축산을 활용한 고품질 우수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10	4.44	0.601
⑤ 축산물 위생·안전 강화를 통한 안전 먹거리 유통	7	4.52	0.500

### 3) 농업·농촌 정책에 관한 기타 의견

-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는 농업의 중요성을 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지역 특산물과 농업 체험 및 관광 등 세부 분야의 홍보에 대한 의견이 많았으며, 인건비 보조 및 다양한 지원 혜택 등 보조금 대상 및 지급 확대에 대한 의견이 많았음
  - 기후변화 대책, 농산물 가격 안정화 등 체계 구축, 귀농귀촌 인구 증가 및 청년농업인 지원 확대 등 고령화 대책에 대한 의견도 많은 편이었음
  - 이외에도 농업기술교육, 농업인력 지원, 외국인 노동자 대책, 축산업의 체질 개선 및 악취 문제 해결, 지역특산물에 대한 대책과 농민기본수당, 친환경농업 확대 등의 의견들이 적극 제안되었음



[그림 11] 농업·농촌 정책에 관한 기타의견



# 05 결론 및 정책제언

## 1. 결론

### 1) 충남의 농정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 ● 3농혁신의 의미

- 3농혁신은 충남의 농정을 핵심 선도 정책으로 두고 지금까지 분리되어 다루어 왔던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이라는 세 가지 축을 함께 고민하며 이끌어가고자 했던 측면에서 혁신으로 불릴만한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음
- 농민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 가운데 의견 수렴 과정이 수반되었고 사업 발굴 면에서 다양한 혁신적인 시도들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부서 차원의 협력이나 지방 재정의 확보, 조직 기반 등 지방정부가 가지는 독자적인 완결성은 부족하여 시행 측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음

#### ● 민선 7기 3농정책의 의미

- 민선 7기에서는 '3농정책'으로 변모하면서 3농혁신 당시의 추진력은 주춤해진 상태로 기존의 중앙정부의 사업 범위 및 내용을 유지하는 형태로 농정이 진행되어 옴
- 특히 민선 7기 들어 '친환경농산물'과 '식량원예과'로 회귀되면서 3농혁신의 기반이 되었던 충남의 친환경농업 추진 기조는 중점 추진계획에도 포함되는 않는 등 완전히 동력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으며, 친환경농업의 메카로서 지위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대규모 집단화된 정책대상에서 소규모로 다양화된 정책대상을 위한 농정을 강화하고 중소농·고령농 대상의 소득지원 및 농촌복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농정 방향은 행복도정과 부합하

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복농정을 뒷받침할 사업들은 정부 정책 주도 사업들이 주가 되거나 세부 사업에 대한 구체성이 드러나지 않는 등 한계가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노력을 통해 행복농정이 구호에 그치지 않아야 할 것임

## 2) 여전히 어려운 농업 여건

#### ● 농업인의 감소와 고령화 문제

- 충남의 농가 및 농가 인구는 2010년과 2018년 사이 각각 2.5%, 4.3%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감소하고 있고 농가 평균 연령(66.3세) 역시 전국 평균(65.6세)보다 높게 나타났다으며, 연령별 농가 비율은 50대 이상이 92.2%(농림어업총조사, 2015년)를 차지하고 있음
- 한편 2018년 40세 미만 농업종사자 비율(1.72%)은 전국 평균(1.77%)보다 낮은 상태로 2010년 이후 연평균 감소율(▲14.4%)은 전국 평균(▲12.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 고령농업인 역시 전국 평균(54.76%)보다 높은 것(59.50%)으로 나타나 젊은 농업인이 확보되지 못한 채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음
- 영농형태는 2018년 논벼 재배 농가의 비율(54.1%)이 전국 평균(37.9%)보다 월등히 높아 충남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산물 분류별 생산량은 채소류가 전체의 절반 수준인 47.6%, 면적은 식량작물이 79.6%를 차지해 충남의 농업 생산 구조가 식량작물과 채소류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 농가소득의 증대와 양곡 소비량 감소

- 충남 전체적으로는 농축산물 판매금액별 가구 현황은 120만원~1천만 원이 41.8%로 가장 많아 영세한 농가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으나, 설문조사에서는 10,000만원을 초과하는 농가가 2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3,000만원~5,000만원이 19.7%를 차지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의 판매금액을 보이고 있음
- 충남 전체적으로는 농가소득이 2018년 43,510천원, 농가순소득이 30,729천원으로 2010년에 비해 3% 가량 증가하였고 농업소득은 16,124천원으로 6.6% 증가하여 전국과 비교해도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음
- 설문조사에서는 농가의 연평균 순소득이 1,000만원~3,000만원이 36.2%로 가장 많았고 3,000만원~5,000만원이 28.6%를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으나, 농업

경영 관련 비용이 판매금액의 50% 이상 투입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음

- 한편 전국적으로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은 쌀이 61kg으로 나타나 하루 167g의 쌀을 소비하는 수준으로 2010년(72.8kg)에 비하면 17.5% 감소하고 있어 농산물 소비와 관련한 여건도 좋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음

### 3) 충남도 농정에 대한 농업인의 시선

#### ● 농업경영 상황 및 전망과 개선 방안

- 2019년 농업경영 상황은 약간 좋은 것으로 판단한 응답자는 15.9%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2018년 대비 농업소득 변화는 절반 정도가 비슷(54.9%)하거나 감소(34.3%)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좋지 못한 농업경영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음
- 2020년 농업경영 전망과 관련해서는 좋아질 것으로 판단한 응답자는 23.2%에 그치고 있으며 전년도와 비슷(35.9%)하거나 악화(40.9%)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은 농산물가격 불안정(21.5%)과 농산물소비 둔화(14.5%), 판로확보부족(13.4%), 수입농산물(13.2%)이 이러한 부정적인 전망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응답자들은 주요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형태의 전략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판매 등 판로확대(19.2%)와 생산규모 확대 및 축소를 통한 경영 환경 개선(18.6%), 생산품목 다각화(15.6%)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2019년 충남 농업·농촌 정책 평가

- 2019년 충남 농정 평가 결과, 정책효과 1순위 사업은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실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축산 관련 모든 사업이 10순위 안에 드는 결과를 보여 '축산업' 및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안전한 축산물' 부문이 각각 1, 2순위를 나타냄. 이는 작년 한 해 AI나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응답자들이 높이 평가한 것으로 판단됨
- 세부 사업으로는 '충남 농산물 이미지 정착'이 2순위를 나타냈으나 기타 농산물 유통 분야 산업은 낮은 평가를 받아 부문별로는 4순위를 기록했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스파르 팜 등 미래 농산업'은 중간 정도 평가를 받아 '농산업 육성 및 영농 지원' 부문이 3순위를 나타냄

- '농업인 지원 정책' 부문은 '여성농업인 육성'은 8순위로 중상위였으나,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은 최하위 평가를 받아 부문 전체적으로는 5위를 나타냄. 농촌 정책과 관련해서는 '농촌관광' 사업 이외에는 평가가 낮게 나타나 최하위 순위를 보임

#### ● 2020년 충남 농업·농촌 정책 전망

- 2020년 충남 농정에 대한 전망으로는 전체적으로 사업 중요도 평균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나 1순위가 4.68이었으나 20순위도 4.29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결과를 보여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 농민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판단됨
- 2020년 충남 농정 전망 결과, 정책 중요도 1순위 사업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소득 안정 장치 강화'인 것으로 나타나 최근 주목받고 있는 농어민수당과 공익적 직불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짐작할 수 있음
- 다음 순위로는 '농산물 유통'과 '먹거리 복지 향상' 순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유통 문제에 대한 요구와 농업이 가지는 먹거리 제공이라는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감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농식품 유통'이 부문별 중요도 1순위로 나타남
- 농촌 정책은 부문별로는 가장 낮은 순위를 나타냈지만, 세부 사업 가운데는 '농촌복지와 사회적 농업'과 '여성·청년농업인 육성'이 비교적 높은 중요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 사업 가운데는 '친환경농업 확산과 인삼산업 전략산업화'가 최하위 순위를 나타내 충남 농정에서 중요한 근간이 되어왔던 친환경농업에 대한 현재 위상을 짐작할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 친환경농업과 인삼산업의 전략산업화를 한데 묶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음

## 2. 정책제언

### 1) 행복농정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필요

#### ● 충남 농정의 비전은 무엇인가

- 충남의 농정비전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충남'으로 잡았으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전이 그려져야 하는지가 나타났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며, 이러한 큰 방향에 맞추어 이제라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해나가야 할 것임
- 단계별 추진 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 속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들과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 사업들이 그려져야 할 것이며, 이 가운데 2020년 사업들의 위계가 명확히 드러나야 충남 도정이 그리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임

#### ● 민선 7기 3농정책과 어떻게 연계해나갈 것인가

- 특히 민선 7기 3농정책과 연계하여 큰 틀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대규모 집단이 아니라 소규모 다양화된 정책대상 대상에 대한 고려와 특히 중소·고령농에 대한 농가소득 지원과 중소·고령농에 대한 농촌복지 강화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 충남 농정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화된 정책대상 가운데 주목할 만한 계층으로 여성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이 거론되고 있는데 기존의 추진 사업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 정부 정책과 차별화된 충남의 세부 구상 및 실천 필요

#### ● 충남의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소득 지원 방안

- 최근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 지원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하는 농민들의 열망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은 2020년 주요 정책 1순위 결과에서도 알 수 있음
- 충남에서는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위한 다양한 실천을 소득보전과 연계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2017년 과감한 아이디어로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시험적으로 시도했으며 이는 농림부의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으로 연결되어 진행되고 있는 등 큰 성과를 남김

- 하지만 정작 충남에서는 혁신적인 자체 시도들은 사라지고 농어민수당 개념과 접목한 형태로 시행을 앞두고 있어 충남만의 색깔이 아쉬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충남이 시도하고자 했던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천에 대한 논의를 마을 단위에서 재개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국비 사업의 틀 안에서도 충남의 세부 구상을 더하는 작업을 통해 다양한 실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더불어 충남에서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농어민수당이 기존 사업에서 변화된 형태에서 나아가 타 지역과 차별화되어 수행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모아야 할 것임

#### ● 충남의 지역 먹거리(로컬푸드)와 지역 먹거리 계획(푸드플랜)

- 판로 확보를 포함하는 농식품 유통에 대한 기대는 부문별 1순위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나, 먹거리 공급기반 측면에서 제기된 푸드플랜이나 농산물 유통체계 측면에서 언급되고 있는 로컬푸드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대도시 로컬푸드 직매장, 광역직거래 센터, 로컬푸드와 접목한 6차사업 등)에 '지역 내 생산, 지역 내 소비'라고 하는 로컬푸드에 대한 기본적인 정신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충남의' 지역먹거리(로컬푸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먹거리 계획(푸드플랜)에 충남의 색깔이 드러나지는 못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할 수 있음
- 더불어 친환경농업의 메카인 충남에서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는 5개년 계획 이외에 그 어떠한 자체 노력이 발견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지역의 전문가와 영양교사, 농민 단체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 거버넌스 구조마저 지켜지지 못하고 있어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현물(차액) 지원 및 유치원생과 고등·특수학교 무상급식확대 등 학교급식체계의 선진 지역으로서의 명성마저 무색해질 지경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보다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소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실천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이제라도 다시 시작해야 하며, 그 기반이 되는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도 충남 농정의 핵심이었던 거버넌스 체계를 재구축하는 방법을 통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역 현장의 실천을 정책에 반영하고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임

#### ● 여성농업인 정책

- 여성농업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책 근간이 되는 여성농업인 기본계획('21~'25)이 수립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충남의 각 실과의 관련 사업들이 열거되는 정도에 그치지 말고 꼼꼼한 점검과 범실과 차원에서 시행 가능한 사업들이 현실적으로 담겨야 할 것으로 여겨짐

- 2020년 사업 가운데 행복바우처카드의 확대는 고무적으로 판단되나 여성농업인센터는 각 지역별로 더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전면적인 지원 환경의 확충은 각 지역별로 여성농업인들이 처한 다양한 현실에 맞는 보다 구체적인 지원 사업과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금까지 여성농업인은 농업 생산은 물론 농촌 생활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갈등 해소 및 소통의 창구로서 그 역할이 매우 크고도 중요하며, 이제는 복지 정책 차원의 수혜적인 입장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에 주목해야 할 것임. 충남 전체 농가인구 대비 절반이 넘는 51.2%를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이 지역에서 다양한 역할에 맞는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주목하여 다양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 청년 농업인 정책

- 청년 농업인에 대한 관심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거론되는 등 농업의 고령화와 농촌 과소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 정부는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도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
- 충남에서는 자체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어 농림부와 롯데마트의 협력을 통한 친환경청년농부사업을 3년째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는 시작부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친환경 청년농부를 지역의 멘토 등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육성하자는 유래 없는 선진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2020년 들어 친환경청년농부사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여 향후 친환경 농업 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청년 농업인 육성에 대한 총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 특히 충남도의 각 실국별로 흩어져 있는 청년 농업인 정책을 한 곳에서 아우르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단기·중기·장기로 가야 할 로드맵을 제시하고 청년들의 육성 단계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지속성을 견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임

### ● 농촌복지정책

- 농촌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농촌 커뮤니티 케어와 같이 범 부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고령자나 어린이 및 아동, 여성농업인, 청년층은 물론 장애인, 다문화 가족, 북한 이탈 주민, 귀농귀촌인 등 농촌 지역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모든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형태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지역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020.03.25. 관계부처 보도자료)하였으며 이 가운데 농식품부와 복지부는 지역의 상황과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농업과 연계하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전면으로 내걸고 있음
- 그런 의미에서 충남에서 2020년부터 시작되는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육성 시범사업은 개별 농장을 지원하는 국비 사업과 차별화하여 지역의 협력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단위에서 실천을 확산해가는 형태의 혁신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음
- 이렇듯 지역사회가 처한 여건과 요구에 맞는 형태로 지역 주민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거버넌스 구조 하에서 다양한 형태의 돌봄이 교육과 연계한 형태로 각 지역사회의 사정에 맞는 농촌복지정책을 위한 세부 사업 발굴 및 연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3)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준비해나갈 것인가

### ● 코로나 19 이후의 먹거리, 농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

-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식량안전 보장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외식이 줄어드는 대신 집에서 먹거리를 해결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보다 좋은 먹거리에 대한 구입은 물론 면역력 강화를 위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충남에서는 학교급식용 농산물에 대한 소비확산 판촉 확대 및 화훼농가 지원 등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입함으로써 지역 농업을 지켜내려는 움직임들이 지역의 농업농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연계되고 있음

### ●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준비

-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은 이제 일시적인 피해 대책에서 나아가 먹거리 생산이라는 중차대한 농업의 역할과 그러한 농업을 품은 농촌이 유지될 때만이 온전할 수 있다는 농업농촌의 공공의 가치에 대한 인식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큰 틀에서 충남의 지역 먹거리 체계 문제를 비롯하여 농업농촌 지역의 인력 문제, 농산물 유통 및 가격 문제를 포함한 소득 및 경영안정 문제, 보다 더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에 대한 고민, 농촌복지와 관련한 지역통합돌봄정책 등 충남의 농업농촌이 풀어나가야 할 총체적인 과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새로운 방향 설정에 대한 논의들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임

## <참고문헌>

- 강마야·구자인·정석호(2018), 충청남도의 농정추진체계 실태 사례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위탁연구 최종보고서.
- 김기홍(2019), 일본 농촌의 일자리 창출 실태와 시사점, 농어촌과 환경, 제143호
- 충청남도 3농정책위원회(2019), 민선7기 3농정책 추진계획(2019-2022), p.31.
- 충청남도 농림축산국(2019), 중소고령농업인이 행복한 농정추진 전략, 충남 미래전략 수립 토론회 자료집(2019.08.25.).
- 충청남도 3농혁신위원회(2018), 『충남의 3농혁신 이야기』, 도서출판 따비, pp.50-55.
- 충청남도(2018), 충청남도 3농혁신 3단계 추진계획(2019-2022)
- 충청남도(2018), 3농혁신 백서(2011-2018), p.84.
- 충청남도(2017), 3농혁신 추진상황보고자료.
- 충청남도(2019), 2019년 주요업무추진계획.
- 충청남도(2020), 2020년 주요업무계획.
- 충청남도의회(2019), 지역복지정책과 사회적 농업 접목 방안.

3농혁신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3nongMain.do>)